

시대가 요구하는 창조적 선교전략의 사례

에스더박 선교사

지난 2년간 Covid-19 팬데믹이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겪어보지 못한 최대의 위기 속에서 교회·선교단체, 선교사 모두에게는 새로운 방법의 선교전략과 미처 생각하지 못해왔던 국경 없는 선교를 전개 할 수 있게 하는 미디어를 통한 (주로 Zoom) 선교를 구가하게 하였다. 자발적이든 아니든 변화무상한 세계의 흐름과 함께 선교의 변화도 요구되는 시기에 처한 것 또한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으로 다시 입국(2017)하여서 부터 사역을 하였거나 앞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들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 Migration 으로 생긴 Diaspora 선교

최근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사건등을 통해 더욱 부각된 끝없는 난민행렬에 대한 부담감이 선교사들사이에서 더욱 심화되고있다. 나 자신도 나의 대학원강의 (Grace Mission University, Fullerton, CA)를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중동 난민 학생들도 있다보니 더욱 이 문제에 있어 좀더 교회나 선교단체들이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아래는 몇가지의 실례를 들어보았다.

1) 이민자 보호교회

The Korean Christian Journal 에서 “이민자보호 교회를 소개합니다” 라는 글을 접하게 되었다. 2015년 9월 2일, 3살배기 시리아 난민 아기가 터키 서부 해안 도시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지구촌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그 사진에 달린 기사 제목이 “세 살 아이 받아준 곳, 천국밖에 없었다” 였다. 자격 미달이라고, 있을 곳이 아니라고 내 물린 서류 미비자들이 이민자의 천국이라는 미국 내에만 1천 2백만이 넘는다고 한다.

이민자 보호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 제도에서 기본 아이디어를 빌려온 운동이다 (민수기 35장, cities of refuge). 미주 한인교회들도 힘없고 가난한 이민자와 소수민족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세상에 보내진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 Glocal (Global+ Local)

선교사로서 현재를 바라보는 통찰력은 세계적이면서도 지역적이어야 한다 (Global +Local = Glocal). 글로칼 곧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캐치 슬로건은 말 그대로 사고와 전략은 세계적으로 하되 행동과 경영은 지역 상황에 맞게 한다는 뜻이다.

필자가 지난 15년간 섬기던 선교지(필리핀)에서 돌아와 2017년 캘리포니아에 설립한 Global Leaders Institute (www. Gli.center)의 모토도 ‘글로칼’이다. TEE, 난민 지도자 훈련과 선교지 현지인 대상 online 신학교육, 유학생 사역 등은 북미 Local에 거주하면서 Global한 사역이 가능한 글로칼한 선교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는 GLI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사역을 소개하고자 한다.

a. 소수민족 목회자 훈련

최근 GLI에서는 locally 영입한 몇몇 인도네시아 교수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인 대상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local과 global을 함께 어우르는 사역의 좋은 예이다. 남가주의 여러 인도네시아 교회들의 목회자들 중 다수가 정식 신학교육을 받지 못하고 목회를 해왔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면서 신학교육의 절실함을 호소하던 차에 Grace Mission University (gm.edu)와 연계해서 학사, 석사 학위 과정을 인도네시아어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20명의 인도네시아인들이 캐나다와 미국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온라인을 통해 정식 신학교육을 받고 있다.

b. 온라인을 통한 교육

GLI를 2017년에 설립할 때만 하더라도 펜데믹을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이번에 Covid-19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vision이라는 것을 새삼 피부로 느끼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인도네시아인 선교와 함께 GMU의 강의를 통해 만나게 된 중동 이슬람권 난민들의 예를 들 수 있겠다. 2020년에 교회사 수업에 온라인을 통해 7명의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을 탈출해 터키와 그리스로 망명해온 refugee 대학원생들 (M.Div)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더욱 연민을 가지고 대할 수 있었고 교수와 학생 관계를 넘어 이제는 mentor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동 선교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 www.jesuschrist.com)은 난민의 삶을 살면서도 현재 대학원 수업을 듣고 있는 그 학생들을 위한 website로 그들에 관한 소식과 글들을 읽고 격려해 줄 수 있다)

3) 비대면 미디어사역 (Zoom, Satellite TV, radio 등)

a. ZOOM: 팬데믹 기간 동안 Zoom이라는 비대면 방식의 online 소통방식을 통해 지역적이거나 글로발한 스케일로 사역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중 한 가지 새로운 시도는 선교사와 그들을 후원하는 후원자들과의 만남이 가능하게 되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Zoom 이라는 새로운 소통의 형식으로 지역적 경계 없이 선교사들을 초청하여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 등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더욱 많은 교회들과 후원자들이 이런 소통방식을 통해 현장의 선교사들과 동역할 수 있다. 다른 한가지 시도는 2022 년에 미국에서 젊은층 자원 봉사자들의 영어 클래스를 몽골의 교회를 통해 현재 단기 선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접촉점을 마련해서 서로를 익히고 복음전달과 영어를 함께 보급해서 나중에 서로가 대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게 할 예정이며 (일단 5 개 반으로 시도), 다른 나라로 지경을 넓혀 나갈 계획을 하고있다.

b. T.V. Satellite 사역의 예: 이란

나의 학생 중에 이란 부부가 있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란교회의 상황을 주시하였는데, 놀랍게도 현재 복음주의 교회가 제일 성장하고 있는 곳이 중동의 심장부 중 하나인 이란이다! (*operation world 참조) 여러 선교 research center 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 삼아 7,000 여 개의 지하 교회와 백만 명 정도 성도의 숫자를 추산한다. 인터넷은 정부가 관여 할 수 있으나 Satellite T.V. station 을 통한 복음전파는 안테나 하나만 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여러 채널을 돌리는 과정에서 이란말로 복음을 전하는 채널을 통해 엄청나게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Australia 에 기반을 두고 방송으로 말씀을 전하는 Alizadah 목사님의 성경 공부에 40 명이 팬데믹 전에 참여하였다면, 지금은 600 여 명이 참여할 정도의 부흥을 이루고 있다.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invisible Christians)관리해야 하는 교회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4) 유학생 사역

현재 미국에 백만 명 이상의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필자는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우연한 기회에 네팔에서 온 유학생을 만났다. (한 의과대학에만 150 명의 네팔 학생들이 있었다) 그들과 교제하며 (특히 한류 바람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여름. 겨울 캠프 등을 통해 힌두. 불교 배경을 가진 유학생들에게 YouTube 를 이용한 media 사역으로 기독교를 소개할 수 있었다. 그들이 졸업한 후에도 네팔을 방문해 현지 선교사들에게 그들을 소개하여 주고 지속적인 멘토링을 부탁했었다.

미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유학생 사역을 하는 단체들과 더불어 유학생들을 제자 삼아 그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선교 사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재 몇 개의 Korean-American 교회들과 함께 이 사역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려 하고 있다.

결론: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교회가 대면. 비대면을 오가며 드리는 예배에 익숙해져 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재난의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도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이제는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그러한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그동안 보지 못하였던 세상과 역지로라도 교회가 현실과 연결되는 계기가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upgrade).

하나님의 선교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 팬데믹의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의적인 전략들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생각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기를 나 자신과 이 글을 읽는 모든 동역자에게 촉구한다.